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1> 사천성 아미산에서

선종의 언어는 흔히 '격외(格外)도리'라고 말한다. 기존의 상식적인 틀을 깨버린 파격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선사들을 '출격(出格)대장부'라고 부른다.

이번에 중국 사천성 보현성지 아미산에서 며칠 머물 수 있는 인연이 닿았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파격적인 절 이름들이다. 00사(寺) 내지는 00암(庵)에 익숙한 우리의 고정된 틀을 사정없이 부수어버렸다. 하긴 인사동에서 낙원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어떤 요정은 '00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우리 바림과 상관없이 그 이름은 그렇게 세간 사물에 의하여 파격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다.



### 세상지·홍춘평·청음각 등 상식의 틀 깬 사찰 이름에서 중국 선사들의 안목 느껴져

아미산 산꼭대기에 위치한 그 암자는 '금정(金頂)'이라고 불렸다. 이를 그대로 거대한 보현보살상과 큰 전각은 금빛으로 번쩍거리다. 밤이 사 뒤에도 금정(金井)이 있기는 하다. 지리산에서 가장 풍수전망이 좋다는 금대(金臺)라는 이름도 생각났다.

걸어서 해 질 무렵에 도착한 곳이 '세상지(洗象池)'였다. '세상야월(洗象夜月)'이라고 하여 아미산 심경종의 하나라고 할만큼 달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다. 여기 이름은 보현보살께서 담신이 타고 다니던 코끼리를 친히 목욕시킨 연못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절 이름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는 그들의 격외의식이 놀라울 뿐이었다. 한국의 오대산 계곡에는 문수보살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씻어주었다고 해도 그런 절이름으로 승화되지는 못했다.

대나무로 만든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준다. 빗마루에 주루룩 앉아서 모두 바지를 뚱뚱 건조 발을 닦았다. 피로회복에 그만이란다. 그런데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씻어주었고 문수보살은 왕의 등장을 손으로 씻어 냈게 해 주었다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발은 어느 보살이 와서 씻어주느냐? 등산양개선사 모전은 눈이 멀어 길에서 지나가는 낚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발에 사마귀가 난 당신 아들스님을 찾으려고

했다는데... 이튿날 지팡이를 짚고서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내려와 하루를 묵은 곳은 홍춘평(洪椿坪)이다. 여긴 절 앞에 '홍춘'이라는 나무가 많고 골짜기 안에서 비교적 넓은 평지에 위치한 탓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노자>에 몇 천년을 산다는 '홍춘'이라는 나무이름이 나온다. 그렇거나 말거나 절 명칭이라기보다는 무슨 중국 요리집 이름같다.

자장면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공화춘이 인천 차이나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이 많아 웃이 짓는 줄도 모르고 비빔면이 더 낫다는 '홍춘호우(洪椿曉雨)'가 크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팡이를 쬐으니 물이 나왔다는 전설을 품은 샘이 마당 한가운데서 물을 담고 있었다. '세상지' 만큼이나 '홍춘평'도 절 이름으로는 파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버린 곳이 청음각(淸音閣)이다. 이름만 들어도 그 절 풍경이 그려졌다. 아니 다름과 깎아지른 맑은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일품이었다. '개울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溪聲便是廣長舌)'고 하던 소동파의 시 그대로였다. 하긴 동파도 이곳 사천성 아미산 출신이 아닌듯나.

세상지, 홍춘평, 청음각을 걸어서 돌아오는 길은 산도 산이고 물도 물이지만 그 한편의 이름들이 개산한 선사들의 파격적 안목을 대변해주고 있다. '금대(金臺)'로도 총본한데 '금대암(金臺庵)'이라고 불려야만 했고, 동굴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름도 없으면 단 그 동굴이라는 '혈(穴)'마저도 뒷날 '혈사(穴寺)'라고 기록하는 '격내(格內)장부'들과 대비된다.

하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금강산에 선원을 짓고는 '마하연'이라고 이름붙이지 않았던가. 이름그대로 열마나 방이 컸던 이쪽 끝 쪽에서 정진하던 남자에게 저편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한 찰을 같이 살아도 누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해방 전 이 땅 최대 수행처였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사불'을 하고 있는 불자들. '사불'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구도 과정이다.

### '불화 그리기' 강좌에서 만난 사불수행자들

#### ▷사불수행하는 사람들

굳이 수행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선(禪)을 갖는 그 자체가 일념이요 선(禪)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선이 된다. 그것은 선(禪)이 아니다. 그러니 선(禪)도 아니다.

서울 조계사의 불화그리기 강좌에서 만난 30여 불자들. 호기심에서 해보고 싶었다는 한 젊은 여성, 자신의 손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50대 보살,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다는 70대 거사... 부처님을 그리게 된 이유는 달랐지만 가는 길은 같다.

부처님을 그대로 그리는 사불(寫佛). 그것은 붓과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수행이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붓을 잡고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들. 그들은 왜 붓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잡념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생긴다. 왜 사불수행 사불수행 하는지 알 것 같다. 사불을 하기 전에 좌선을 하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느끼고 있다.(문성희 · 50 · 안산 중앙동)

-하루 5시간씩 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욕심이 생겼다. 내가 그리는 부처님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다.(최영순 · 50 · 용인 수지구)

-호흡이 깊어지면서 급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신기하다. 내가 편안해지면 사생활이 편안해졌다. 이런 것이 수행이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낀다.(윤자영 · 43 · 서울)

-매일 저녁마다 사불을 한다. 사불 전에는 반드시 경전을 읽는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조려화 · 45 · 서울 보문동)

-하루 종일 11장을 그렸다. 1장 그리는데 1시간30분쯤 걸린다. 하면 할수록 심취하게 된다. 선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았는데 답을 찾았다. 지금새 인생을 살고 있다.(양득환 · 70 · 인천 부평구)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깊은 매력에 느껴진다.(이소정 · 28 · 서울 중랑구)

-기도하지 않고는 붓을 잡지 않는다. 수행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이전 정말 수행이다. 할 때마다 삼배하고 기도한다.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게 됐다.(강미형 · 42 · 포천)

-조용히 하고 있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문예자 · 60대 중반)

#### ▷사불, 왜 수행인가?

조계사 불화그리기 강좌를 지도하고 있는 이철승(42) 화백은 "붓을 이겨야 제대로 선을 그릴 수 있다. 붓을 이겨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신을 이기고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선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사불 자체가 수행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선을 올바로 긋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멈춘 채 붓끝

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의 수없는 반복을 통해 비로소 '선(禪)'을 배운다. 선(禪) 하나에 몸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 그러니 바로 선(禪)인 것이다.

사불수행도량 공덕사 주지 법인 스님(사불수행연구회 연구원장)은 "사불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이라며 "사불은 고려시대에 사경과 함께 발달했던 수행의 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불수행의 단계

불화는 초를 뜨거나 승화(寫畫)·먹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것(寫)을 거쳐 채색으로 완성된다. '초를 뜨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려진 초본(初本) 위에 한지 등 밀그림이 비치는 종이를 대고 그대로 베끼는 작업이며, '승화'는 초본을 옆에 놓고 눈으로 보며 베끼는 것이다.

사불은 채색 전 단계인 초를 뜨거나 승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불 첫 단계는 보통 시왕초로 시작한다. 그 뒤 보살초(관음초, 문수초, 보현초), 신중 또는 사천왕초로 단계가 올라가며 이 과정이 익숙해지는 데에는 평균 1~2년 정도가 걸린다.

시왕초를 그리는 단계는 붓끝과 교감하는 과정으로, 먹칠을 하는 순간 먹이 많은지 적은지, 선을 강하게 그려야 하는지 약하게 그려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익히게 된다. 이때부터 호흡법도 본격적으로 배운다. 보살초를 그리는 단계에서는

## 붓끝에 몸·마음을 하나로

“선(禪)은 똑같이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붓은 마음이다. 너무 딱 쥐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된다. 중도여야 한다. 사불은 자기정조도 아니고 개성표현도 아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길이다. 거기에 나 자신은 없다. 자신을 넣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자기다. 사불은 그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이뤄지는 마음의 그림이다. 선(禪)은 선(禪)이다.”

손의 유연성과 자세를 갖추면서 긴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초 뜨는 단계를 지나면 승화 단계를 거쳐 되는데, 이 단계는 그리는 대상의 균형미와 표정 등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가 지나야 익숙해진다. 사불수행은 바로 초 뜨기와 승화 단계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불성을 찾는 일이다.

글 · 사진·현명우 기자

#### ▷사불 배울 수 있는 곳

사불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으로는 서울 공덕사(02-2066-8061)가 있으며, 조계사(02-732-2183) 길상사(02-3672-5945) 아미타사(02-745-3352) 만해불교대학(02-738-3385) 동산불교대학(02-732-1206) 통도사박물관(055-382-1001) 태고종 대구종무원(011-814-0648) 등의 '불화' 강좌에서 사불을 배울 수 있다. 강좌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열린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화균  
전화주사는 본래는 인내 지력을 보태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형편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잡념 없어지고 인내심 생겨”  
“그리는 부처님 통해 참나 만나고 싶어”  
“호흡 깊어지면서 급한 성격 차분해져”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중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한 행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김종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